

청와대 앞길¹⁴

시민들에게 되돌아온 산책길

걸는구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무궁화동산
→청와대 앞길→공근혜갤러리
→삼청동 주민센터

걸는거리 1.2km

소요시간 20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초급코스

2017년, 드디어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청와대 앞길은 청와대 서편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효자동 방면)에서 청와대 앞을 거쳐 동편의 삼청동 주민센터(삼청동 방면)로 빠지는 길을 이른다. 앞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던 검문소와 바리게이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친절히 길을 알려주는 교통안내초소가 생겼다.

개방 이후, 미국의 백악관이 관광객들의 명소가 된 것처럼 청와대도 점점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청와대는 1968년 31명의 북한 무장공비 습격 사건 이후 완전히 폐쇄되었다가 1993년부터 일부 출입이 허용되었지만 밤에는 통제해왔다. 청와대 앞길이 활짝 열리면서 가장 좋은 점은 북악산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청와대 정문 앞에서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한 밤중에도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묻는 사람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앞길로 들어서면 좌우로 울창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 나무그늘과 아름다운 꽃밭을 감상하면서 산책을 할 수가 있다. 경복궁



서측 효자로에는 대림미술관과 진화랑 등 갤러리가 몰려 있고, 이 거리를 따라 올라가면 청와대 방문자센터 역할을 하는 사랑채와 분수대가 있는 효자동 삼거리에 이른다. 경복궁 동측 삼청로에도 이름난 갤러리들 뿐만 아니라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자리하고 있어 예술작품 감상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면서 경복궁 돌담을 따라 걷는 돌레길이 새로운 산책길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 앞길과 경복궁 후문이 연결되어 있어 이제는 시간에 구애 없이 경복궁을 관람한 뒤 돌레길을 한 바퀴 걸을 수 있게 됐다.



매주 화요일~토요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관람
신청을 하면 무료로
청와대 내부를 관람할 수 있다.
노약자들을 위한 우편 신청도
받고 있으며, 신분증 외에
특별한 준비물은 없다.
관람문의 02-730-5800
tour@president.go.kr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청와대 방향으로
약 800m 걸어가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나온다.
- 02-2148-2834 종로구청 공원복지과
- 이용시간 제한 없음 / 주차장 별도로 없음 / 화장실 주민센터에 있음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가능 /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

